

동해의 지리적 명칭에 관한 역사적 전례와 국제적 표준화

이 기 석

(서울대 교수/동해연구회 부회장)

국내 문헌과 고지도 자료에 따르면 '동해' 명칭은 기원전부터 사용되어 온 지리명칭이었으며, 특히 고려시대 이후 '동해'는 '신(神)' 과 동가의 대상으로서 인식되었으며 고지도상에는 '八道總圖(1530년)'에 이르러 바다 신을 제사하는 곳에 '동해'라는 표기를 남기었다. 중국의 경우 문헌상에서는 遼시대 이후 '동해' 표기가 보편화되었으며 한때는 남해, 경해, 창해와 같은 별칭을 사용한 적도 있었다.

고지도상에는 13세기 '輿地圖'와 16세기 '四海華夷總圖'에서 이미 '東海' 명칭을 사용하여 왔으며, 1602년 선교사 Ricci가 만든 지도에는 예외적으로 '일본해' 표기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19세기 말까지는 '동해' 명칭이 표준화된 지명이었으며, 이는 중국대륙 즉 아시아 대륙의 동쪽 바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에서는 1870년대까지 대체적으로 '조선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어 왔으나 이후 발간되는 모든 국가 발간지도에서 '일본해'로 바꾸어 쓰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유럽제국에서 17세기 이후 한반도의 윤곽이 세계지도상에서 반도 형태로 표현됨과 비슷한 시기에 동해의 명칭을 'Sea of Korea'로 쓰기 시작하였다. 비록 일부 지도에서 'Sea of Japan'이라는 명칭을 혼용하기도 했지만, 특히, 프랑스와 영국에서 제작된 대부분의 권위 있는 지도에서는 18세기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예외 없이 이 같은 전통을 유지하였었다. 그러나 동해안 지역에 대한 유럽인의 탐험이 빈번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유럽에 소개되어 '일본해'의 표기가 많은 지도에 쓰기 시작하였다고 보인다.

실제적으로 '일본해'가 공식적으로 표준화 된 것은 1919년 처음 국제수로기구가 설립되어 해양과 바다의 명칭을 표준화하는 결의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다. 약 10년 뒤 1929년에는 '일본해'를 국제적으로 공식화하게 이른다. 한국정부는 1992년 UN지명표준화회의에서 동해표기의 국제적 표준화를 요청한바 있으며, 1994년과 1997년에는 IHO에 요청하였음. 2000년 1월 UN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에 대한 법률적 적절성 검토를 요청하고 UN 결의안 이행과 평가에 대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동해명칭의 국제적 표준화는 일차적으로 식민지 잔재를 마지막으로 제거하

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4세기이후 수세기에 걸친 덴마크 식민지에서 1944년 독립한 아이슬랜드가 최근 그린랜드 사이에 식민지시기에 명명한 “덴마크해협 (Denmark Strait)” 명칭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 독립국간의 자존심과 대안 국가간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본 당국자와 학계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자리에 나와 새 역사 창출과 이 지역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협의를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일본은 우선 UN 결의안과 IHO 규정에 명시된 두 명칭 병기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국제적으로 이 바다에 대한 새로운 이름의 명명이 요망된다면 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